

### -언제 처음 한국을 방문했나.

“지난 18년 동안 계속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. 1년에 적어도 한 번, 많게는 서너 번도 간다. 제일 처음 한국에 갔을 때, 먼저 제주도를 방문했다. 물론 공항을 들르긴 했지만. 하하.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웠다. 개인적으로 도시로 가서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기 보다는 시골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. 도시는 서울이나 도쿄, 뉴욕, 거의 비슷하지 않나. 그래서 한국의 사람과 문화를 보려고 제주도로 갔다. 물론 관광지긴 하지만 사람 손이 덜 닿았고 자연과 가까운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다. 그러곤 서울로 와서 친구들과 당시 경복궁에 있던 국립중앙박물관에 가게 됐다. 아직까지도 그 날이 생생하다.”

### “고려 청자, 상감 청자 색깔에 매료”

#### -그날 한국 미술과 사랑에 빠진 전가.

“그렇다. 한국 미술과 사랑에 빠진 그 날, 그 순간이 눈에 선하다. 시대 순으로 전시가 진행됐는데, 처음에는 신라시대를 보면서 일본식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. 그 전에 일본에서 2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. 그러다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로, 고려로 점점 전시가 이어졌다.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 미술만의 매력에 점점 더 매료되기 시작했고, 특히 고려 청자, 상감청자 등을 보면서 생전 처음 보는 색깔에 반했다. 수천 년 전에 이런 기술이 있었다는 것, 이런 색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놀라웠다. 하지만 진짜 사랑에 빠진 순간은 조선시대 전시관으로 갔을 때다. 그때였다. 분청사기를 본 그 순간 한국 문화와 미술에 빠졌다.”

#### -분청사기에 빠졌다니.

“가장 놀라웠던 것은, 청자처럼 세밀하고 우아한 모양의 그릇을 만들어 내던 민족이 거칠고 와일드한 분청사기도 만들었다는 점이다. 이 두 가지 얼굴을 모두 갖고 있는 문화권을 본 적이 없어서 더 놀랐다. 방금 전 청자가 있던 전시관에서 나와서 분청을 봤는데, 이 두 가지를 한 문화권에서 만들어내다니...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. 음악으로 치면 클래식과 블루스·재즈 음악이 공존하는 것이다. 이쯤에서 함께 박물관에 왔던 친구들은 먼저 둘러보냈다. 하하. 그날 이후 한국 미술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배우려고 노력했다. 한국 미술 컬렉터이자 일본 미술 딜러인 한 친구가 있는데, 이 친구가 그런 말을 했다. “한국 미술이 내 마음에 구멍을 뚫었다.(It stabbed a hole in my heart)” 내 마음이 딱 그랬다. 더 많은 책과 미술품을 모으고 한국 미술 관련 행사에 참석해 그 구멍을 메우려고 한다.”

### 한국 미술 관련 책 닥치는 대로 구입

지금까지도 한국 미술을 향한 그의 사랑은 이어진다. 그는 한국 미술과 관련된 책은 눈에 닿는 대로 모두 구매한다. 창고 겸 사무실로 사용하는 첼시 오피스에는 털리가 그 동안 모은 한국 고서 등 미술 관련 서적만 2000여 권이 소장돼 있다. 물론 여기 있는 책은 모두 한 번 이상 읽은 것들이다. 큐레이터, 컬렉터들이 방문해 종종 책을 빌려가기도 한다. 1958년 뉴욕에서 처음 있었던 한국 미술 전시 브로셔를 비롯해 이화여대에서 발행한 서적 등 종류도 다양하다.

#### -직접 책을 쓰진 않는지.

“최근 미술 교과서에 한국 문화와 관련된 챕터(chapter)를 썼다. 맥그로힐(Mcgraw Hill)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미술 교과서다. 또 우리 코리안아트소사이어티에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에도 종종 글을 쓴다. 내가 알기론 영어로 된 한국 미술 관련 간행물은 우리가 발행하는 것이 유일하다. 물론 무료다. 코리안아트소사이어티로는 전혀 수익을 내지 않는다.”

#### -한국어도 배우고 있다고 들었다.

“원래는 오랜 시간 동안 한국어를 알지 못해 한국을 방문해도 손짓 발짓을 하며 의사소통하곤 했다.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국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든 건 얼마 전이다. 배우면 배우수록 세종대왕은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. 곧 한국어능력시험(TOPIK)도 볼 예정이다.”